

Andrew Barry

앤드류 베리

로열 익스체인지 씨어터 연출가, 무대 예술가



앤드류 베리는 맨체스터 에서 활동하는 무대 예술가이자 연출자로 전문 배우와 비 전문 배우들과의 작업을 해왔다. 엑서터 대학교에서 연극학부를 졸업하고 런던 대학교 버크백 대학에서 연극 연출로 석사학위를 수여하였고 맨체스터의 익스체인지 왕립 극단에서 조연출로 활동하였다.

2010 년부터 앤드류는 맨체스터에서 프리랜서 연극 예술인으로 활동하다가, 2014 년에 그는 영국 국민 신탁 소유의 고저택 던험 매씨에서 1 차 세계대전 당시 병원으로 이용했던 저택을 재현한 작품 <참호 속에 피난처>의 연출을 맡았으며 2017 년에는 1 차 세계대전 솜므 강 전투를 기리기 위해 만든 제레미 델러의 <우리는 이곳에 있기에 이곳에 있다>의 영국 북서부 담당 부연출로 활동했다. 이 작업물은 1400 명의 참가자들이 1 차 세계 대전 당시 의상으로 갈아입고 영국 전역에 등장하는 현대예술작품이다.

또 그는 맨체스터에서 청소년 극단들을 이끌면서 익스체인지 왕립 극단과 작업을 여러 번 함께 작업을 진행하였고 2014 년에는 함께 시니어 극단을 창단했다. 이후부터 그는 시니어 극단을 이끌며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고 작품 <너와 나 사이>, <세상을 바꾼 순간들>의 연출을 맡았다. 현재 앤드류는 어린이 극단 고블린의 부연출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는 <루디의 발라드>, <호두까기와 생쥐> 그리고 <피리 부는 사나이>의 창작 뮤지컬 연출로 참여했다.